

“위기를 넘어 축산업의 새시대를 열자”

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
축산생산자단체 일동

제공일 : 2021. 8. 5

담당 : 이정훈 축단협 대외협력팀장

제공자 :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

전화

02)588-7055

팩스

02)584-5144

쪽 수 : 1P

이메일

kdbfa@chol.com

별첨자료 : 없음

농가와의 상생차원에서 사료가격 인하요인 발생 시 즉각 반영 요청

- 축산생산자단체, 한국사료협회장 면담실시 -

- ☐ 축단협 이승호 회장,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(축단협 부회장)은 축산생산자단체를 대표하여 8월 5일 한국사료협회에서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과 면담을 갖고, 올해 단행된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.
- ☐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우선 지난 2~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배합사료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,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. 또한,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, 환율 상승 등 사료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한다면서도 농가가 있어야 사료 업계도 존재하는 것이라며, 향후 인하요인 발생 시 시장흐름에 맞게 사료가격에 즉각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.
- ☐ 아울러, 추후 가격인상요인 발생 시 현장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윤폭 축소차원의 사료가격 인상 자제, 사료안정기금 형성 등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였다. 또한, 사료업계의 한우 위탁사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진출자제를 위한 사료협회 차원의 적극 대응도 촉구하였다.
- ☐ 조충훈 사료협회장은 “금일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”면서, “추후 인하요인 발생 시 조속한 사료가격 인하반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적극 독려하는 등 상생의 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”고 밝혔다.
- ☐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“현재 축산농가들은 규제 및 물가일변도의 정책과 개방화, 사료값 폭등까지 더해 경영압박이 심각한 상황”이라면서, “상생정신에 입각하여 추후 인하요인 발생 시 즉각 사료가격에 반영하라”고 재차 강조하였다.
- ☐ 한편 이날 양측은 정부에서 축산업 규제보다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정하여 원자재(곡물) 가격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 “끝”